

담배에 대한 나의 생각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하진 않겠다. 담배를 피우던 피우지 않던 간의 문제는 자신의 선택이다.

단지 딱 1가지, 내가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싶은 것은 장소를 가려서 피우라는 것이다.

이전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언제가 어느 조사에서 보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피우지 않고, 그 옆에서 연기만 맡는 사람 쪽이 더 큰 피해를 받는다고 한다.

결국,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간접적인 흡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의 문제도 되는 것이다. 그것은 억울한 일이다.

내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대해 자유를 인정하는 한,
나에게도 연기조차 맡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